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전남도, 영광서 사회적경제 한마당...700여명 참여 햇밀 마켓 등 우수제품 판촉...공동체 가치 실현 다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직면한 지역공동체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회적 경제인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전남도가 지난 25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사회적 경제인 간 협력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24년 전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한마당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경미·박원중·오미희 전남

도의원과 김정섭 영광부군수,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햇밀 마켓과 홍보·판매 부스, 오아시스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기념식에선 사회적경제 육성·활성화에 공로가 큰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청년 활동가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샌드아트로 만든 주제영상을 상영해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전남도 사회적경제조직 4개 단체·영광군 사

회적경제협의회와, 한빛원자력본부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각각 마련한 6500만원, 2000만원의 성금을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영광군 푸드뱅크에 기부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나눔 실천으로 그의 미를 더했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50% 가격 세일 이벤트인 '햇밀마켓', 전남 사회적경제소상공물 녹색나눔 입점 상담 및 회원가입 할인행사인 '녹색나눔 이벤트' 등 39개 사회적경제 기업 부스를 운영해 제품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동

체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 경제를 이끌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제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시설·장비, 신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투자역량 강화 및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투자유치 역량을 키우고, 더 도약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순천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눈길'

전문 간호사 40명상 규모 24시간 돌봄 서비스...의료사각 해소 기대

전남 순천의료원이 40명상 규모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최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 의료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이 선도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입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간호간병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765개소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이다. 전남에선 2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진의료원도 2025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진료, 치료, 간병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고령부부, 홀로 사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민간 의료기관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앞으로 순천의료원의 운영 사례를 공공

의료 모범 사례로 삼아 민간병원으로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은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의료원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2025년)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적시에 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 강화 도, 12월 9일까지 합동 점검

전남도가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50일간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펼친다. 합동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나 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핀다.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 등 위험 요소 조치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민관 협력 강화 여수서 전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관 워크숍

전남도가 지난 28일 여수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전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관으로 '전남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함께 누리는 건강, 차별없는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장애인 건강지원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 의료센터장은 '장애인 건강권 이해와 주요 정책' 특강을 통해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와 포괄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조준 동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남도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의료서비스 현황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회를 통해 시군별 장애인 의료접근성 격차와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워크숍의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장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지원' 사례발표를 통해 첨단 기술과 의료서비스 융합을 통한 장애인 의료지원의 새 가능성을 보여주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해소되고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장애 친화 의료 기반(인프라) 구축을 중점시책으로 삼아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목포중앙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순천의료원) 건립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4개소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13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5일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4회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관심 뜨거웠다

나주시 개최...3만여 인파 찾아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 무려 3만여명의 인파가 찾았다. 고령 인구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이틀간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제4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다. 'OK! Now 평생학습 전남'을 주제로 열려 146개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나주시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개막식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와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평생학습 성과를 관람객과 함께 나눴다. 방송인 박경림이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우리의 꿈, 다시 씁니다. 새로운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평생학습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에서 학습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SNS 서포터즈' 초청 팸투어

전남도는 지난 28일 전남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 초청 팸투어를 7일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는 전남관광 해외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 170여 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팸투어에는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35명의 서포터즈가 목포, 해남, 여수, 순

천, 담양에 방문해 남도미식을 즐기고 김밥 만들기, 사찰 다도체험 등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만끽했다. 전남도는 서포터즈의 누리소통망(SNS) 후기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뛰어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에도 힘을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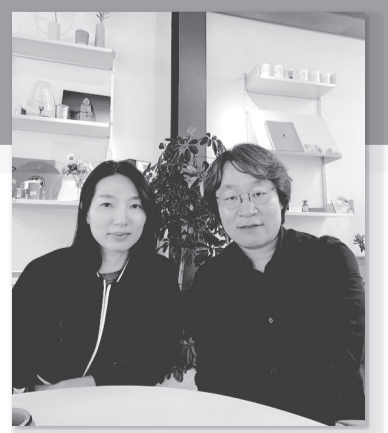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